

## 1/13(수) 사사기 묵상 39

### 사사기 13:1-14

#### 삼손(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사십년 동안이나 블레셋에 의해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힌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오랜 세월을 지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은 모든 사사기의 기사들 중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 삼손의 부모

단 지파의 소라 땅에 거주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그녀에게 태어날 아이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불임 상태였던 마노아 부부에게 이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엄청난 소식을 함께 전해 줍니다(4-5,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가서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전해준 소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셋째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두 가지 사실만 전하게 되었습니다(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에 엄청난 소식들을 몇가지나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는 마노아가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문은 그들이 들은 말씀이 너무 심각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지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노아 부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천사를 만나 그들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 나실인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그들의 아들 삼손이 이스라엘의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열 한 명씩이나 있었지만 나실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나자르’에서

파생된 명사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사가 말한 대로 ‘일평생 동안 머리를 밀어서는 안되고,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독주를 먹어서도 안되며, 시체를 만져서도 안되었습니다(민수기 6장)’. 성경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구약의 삼손과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셨을까요? 이는 아마도 그 이전 사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은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들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목상한 것처럼 사사들이 수많은 처첩을 두고, 이방 종교의 문화를 따르고, 또 많은 재산과 권력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목상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지은 죄악을 가리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속성은 점차 교묘해지고 담대해지며 악해 지는 것입니다(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성실히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어느덧 열 두번째 사사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여호와와 목전에서 담대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인간 나실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고 헌신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인간 사사들의 실패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온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사사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사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혼란한데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행동으로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위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황윤일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